

# 치솟는 예대마진... 팍팍한 서민가계

###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3.46%... 전월비 0.05%p ↑

### 수신금리는 되레 감소... 예대금리차 2.27%p '껍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자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에 수익성 방어에 나서면서 경기불황 속 서민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신금리는 되레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2년 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집담대출 금리는 3.16%로 한달 사이 0.04%포인트 올랐고 보증대출은 3.35%로 0.14%포인트, 일반신용대출은 4.44%로 0.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28%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1월(연 3.34%)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심사가 간간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평균)는 연 1.4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고, 정기적금도 1.58%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이에따라 은행의 대출금리와 이차인 예대금리차(잔액기준)는 2.2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2월(2.27%포인트)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였던 6월과 같은 수준이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7월 예대금리차는 1.97%포인트로 6월(1.95%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에서 기업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를 비교하면 7월 예대금리차는 1.98%포인트로 커졌다.

이런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권의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인상한다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이차이익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원)보다 5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

차이익은 18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여신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 인상을 늦추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억제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12.20 (-3.85)      금리 (국고채 3년) 1.78% (0.00)
- ↓ 코스닥 668.05 (-6.43)      ↓ 환율 (USD) 1128.30원 (-3.00)



## '헌 옷' 주고 '새 옷' 사세요

### 패션그룹형지, 27일까지 보상판매 서비스

패션그룹형지가 광주를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오는 27일까지 보상판매 '새옷출세 헌옷다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이 헌 옷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할 때 새 옷의 일정 부분 보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고객들이 가지고 온 헌옷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아름다운가게는 이 옷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에 쓰게 된다.

이번 보상판매는 패션그룹형지의 '크로커다일레이다',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와일드로즈', '라젤로' 5개 브랜드로, 상설 할인매장을 제외한 1000여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보상 혜택 기준은 이너캔버스 등의 헌옷은 개당 1만원의 혜택을, 점퍼자켓 코트 아우터 원피스 등은 개당 3만원의 혜택을 준다. 또 헌옷과새옷은 1대1 보상 판매를 하며, 5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금액 할인, 10만원 이상 구매시 3만원 금액 할인을 한다.

김인규 패션그룹형지 사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앞두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사회에 작게라도 기여하는 차원으로 이번 보상판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웃으며 행복을 드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5개 브랜드 홈페이지나, 패션그룹형지 고객센터(02-1599-7222)로 확인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 중소 2곳 중 1곳 "추석자금 부족"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11곳 조사...62% "상여금 지급"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추석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식)는 지역 1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53.2%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원활하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곤란하다'는 응답은 전년(49.0%) 대비 4.2%포인트 증가했고 '원활하다'는 응답은 전년(7.0%)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은 '매출감소'(72.9%)가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33.9%), '납품단가 인하'(23.7%), '원자재 가격상승'(22%), '금융권 대출 곤란'(16.9%) 등이 뒤를 이었다.

추석 상여금은 62.2%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 18.9%는 지급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55.9%, 정액 지급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60만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월 지급 상여금은 전년(50.5%) 대비 5.4%포인트 증가했고, 정액 지급의 경우 전년(62만7000원) 대비 2만6000원 줄었다.

한편 이번 추석 10일 휴무 중 9일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7.3%로 가장 많았다. 8일 10.0%, 7일 9.1%, 6일 9.1%로 조사됐다. 반면 10일 모두 쉬는 기업은 21.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평균 7.7일로 가장 많이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7.3일), 도매 및 소매업(5.7일), 건설업(5.7일) 순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

## "기아차가 정신건강센터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누기 차량 전달식

기아자동차 광주지역본부 노사는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열린 '2017 광주시 마음돌봄 어울마당' 행사에서 '사랑나누기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사회 고객들이 보내준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김성안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장과 배동일 기아차 노동조합 판매지원팀장, 광주전남분회장이 노사를 대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SUV 레이 1대를 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린 2017 광주시 마음돌봄 어울마당 행사장에서 '사랑나누기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남언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성안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장, 신원선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배동일 기아차 노동조합 판매지원팀장, 광주전남 분회장. <기아차 제공>

##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주식 1만주 매입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일 금호산업 주식 1만주(0.03%)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9173원으로 총 매입가는 9173만원이다.

박 회장이 최대주주인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의 지분 45.54%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매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호산업이 최근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같은 맥락이다. 금호산업은 최근 주주 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금호산업 주가는 지난 7월 이후 금호타이어 매각 잡음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우려 등으로 줄곧 하락세를 그려왔다. 현재 금호산업의 시가총액은 3300억원으로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가치(3000억원)를 감안하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대성기자bigkim@

## 광주세관 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취득 독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 FTA 활용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세관장이 직접 인증수출자 취득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내 500여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하지만 관내 수출기업이 발급신청시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심사도 3일정도 소요되고 있어 FTA 활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기업 CEO에게 세관장 서한문을 통해 원산지소명서 등 복잡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생략과 2시간내 신속발급 혜택을 주어지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장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세관의 인증심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




# 추석선물은 한국제다 명인이 만든 작열차로!

www.hankooktea.co.kr

**장성, 영암, 해남의 싱그러운 차밭을 모아 70년의 세월동안 녹차 본연의 맛을 추구한 한국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제 녹차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 HACCP 및 ISO22000 인증을 획득.  
아시아나 항공기내 차납품으로 그 맛을 인증받았습니다.

**올 추석에도 명인이 만든 명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 한가위 Festival

무지개 Set



사계절 Set



감사 Set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